

공동체 소식



대림 제1주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하며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늘 나라에 들어가 그리스도 곁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대림시기 안내

- 대림(待臨)이란 '오기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도착' '도래'를 나타내는 라틴말 Adventus를 번역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림시기는 전에 계셨고(첫 번째 오심) 지금도 계시고(우리 가운데 오심) 앞으로 오실(영광스러운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 기다리며 합당하게 준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갑기 그지없는 손님을 맞으려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대림시기를 지냅니다. 특별히 판공성사를 잘 볼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성탄 합동판공성사 안내

- 일시 : 12월 11일(화) 저녁미사 전/후
- 미사 : 오후 7시 30분
- 세인트 루이스(Parish) 김상현 사도요한 신부님
- 11일(화)에 판공성사 못 보신 분들은 매 미사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봉헌서 제출 안내

- 미사 봉헌때 함에 넣어 주십시오.

평협회장 선거 안내

- 선거일 : 12월 16일(대림제3주일)
- 대 상 : 본당 성인남녀 가톨릭신자
- 새평협은 대림 제3주일부터 시작되며 1월 평협회의 때 신규 평협인수인계 마무리합니다. (선거에 관한 규정 교회법 제119조, 172조, 173조)

제19차 성령안에서 말씀과 함께 하는 영성 피정

- 일 시 : 12월 26일(수)~28일(금)
- 장 소 : 텍사스 휴스턴
- 한국어 진행 : 청년, 중장년
- 영어 진행 : 청소년 및 청년
- 게시판 포스터 참조

단체 회합 안내

- 복사단 교육 : 12월 2일(일) 미사 와 식사 후
- 복사단 친교모임은 기상 문제 등으로 추후 공지합니다.
- 전례부 회합 : 12월 9일(일) 미사와 식사 후
- 1구역 모임: 12월8일(토) 7시, 김화년 요안나 자매님 덕

전례봉사자 모집

- 대 상 : 독서, 해설, 복사, 성가대원
- 전례부에 문의.
- * 제의와 전례복 세탁해 주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찬 봉사자 모집

- 대 상 : 형제, 자매님
- 총구역장에게 문의

매일미사 정기구독 신청 안내(상시)

- 신청은 전례부에 문의(1년 \$60)
- 평일 미사 때 영성체송 합니다.
- 미사 참례전 기도문과 독서/복음말씀 읽어 보시다.

평일미사 안내

- 화,수,목요일 평일 미사 30분전 묵주기도 합니다.
- 묵주기도지향 : 냉담교우 회도와 본당공동체를 위해서.

한인회 송년회

- 일 시 : 12월 16일 오후 6시
- 게시판 참조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건
금 주	90	211	171	4
차 주	481	217	159	97

주일미사 복사

	향복사	시종복사
금 주	문호진(안토니오) 차민서(임마누엘)	문예나(요안나) 김지안(요한)
차 주	정예찬(미카엘) 차민서(임마누엘)	정예진(한나) 김정훈(로베르토)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주연(세실리아)	김정원(베드로) 김말자(세실리아)
차 주	김명은(안젤라)	홍순익(마르띠노) 최은미(아녜스)

애찬 봉사자

금 주	1조: 김시연, 박정자, 한순례, 김경돌, 이경남, 정연숙
차 주	2조: 최은미, 김진미, 조경희

헌금 봉사자

금 주	이내익 베드로, 이우영 가브리엘
차 주	홍순익 마르띠노, 김대연 요셉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목 요 일: 10:00 AM
첫 토요일: 10:00 AM (신심미사)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pjsfelix@gmail.com

회 장 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조진환 베드로 jinhwan.jo@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전례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대림 제1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대대로 약속을 잊지 않으시어 온갖 죄악에 짓눌린 인류가 얼굴을 들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희망으로 가득 차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심판자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립시다.

그림 묵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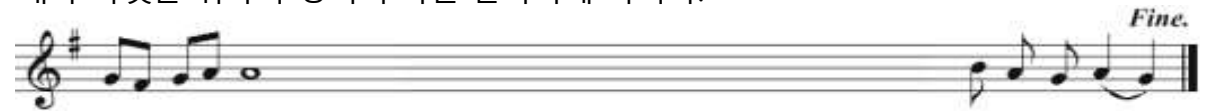
하늘을 찢개고 내려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의 시기입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늘 깨어 기도하여라.”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깨어 기다리는 은총의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주님이 베푸시는 천상잔치에 대한 갈망으로 세상 것을 내려 놓고 그분을 닮아 가기를 기도합니다.

정미연 소화데레사 | 화가

제 1 독 서 :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33,14-16

<내가 다윗을 위하여 정의의 싹을 돋아나게 하리라.>

화 답 송 :



◎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

○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 주님의 계약과 법규를 지키는 이들에게 주님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라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와 사귀시고 당신의 계약 그들에게 알려 주신다.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 1서 말씀입니다. 3,12—4,2

<주님께서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 주실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25-28.34-36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생명의 말씀 "오늘이 바로 마지막 날이네!"



초등학교 6학년이던 1962년, 담임 선생님께서는 수업 중에 늘 일간 신문의 중요 내용을 읽어 주셨습니다. 그해 10월 소련이 미국 본토를 겨냥해 쿠바에 핵미사일 기지 설치를 비밀리에 추진했고, 이를 포착한 미국과 소련 사이에 일촉즉발의 위기가 고조되던 때였습니다.

"지금 핵미사일을 실은 소련의 군함들이 쿠바로 향해 가고 있는데 해상 봉쇄령을 내린 미국 해군과 맞부딪혀서 오늘 밤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 모른다."

선생님의 말씀에 깜짝 놀라 방과 후에 십리 길이나 되는 집으로 한달음에 뛰어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오늘 밤에 핵전쟁이 일어나서 지구가 멸망할지 모르는데요." 선생님께 들은 얘기를 전하자 집안 분위기는 심각해졌고 결국 식구들은 저녁기도를 바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혼잣말이 들렸습니다.

"아니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그래, 요비 말이 맞네! 오늘이 바로 마지막 날이야!"

다음날 새벽, 눈을 뜨자마자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밤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 짙은 안개와 침묵이 흐르는 고향 마을 길을 홀로 걸으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인류 공멸의 위기 앞에서 미국과 소련이 극적으로 타협했다는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어머니의 '오늘이 바로 마지막 날이네!'라는 말은 성경에서 계시되는 하느님의 시간(Kairos)을 관통하고 있음을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절감하게 됩니다. 카이로스는 본래 '결정적인 것', '본질적인 시점'을 뜻하는데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인 하느님에게 온전히 속한 '하느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시간'의 신앙적인 의미를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임의 날은 나날이 아닌 다만 '오늘!', 그 오늘은 내일로 옮지도 아니하고, 어제 뒤에 이어지지도 않은 날이다. 임의 오늘은 곧 '영원!'"이라고 갈파하였습니다.(고백록 11권, 13장) 그런 면에서 교회의

전례력, 전례의 시간은 이 덧없는 인간의 세월 안에 길들여지기 쉬운 우리네 인생에 하느님의 영원한 시간이 개입해 계심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대림 1주일인 오늘은 전례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뜻에 더욱 맞닿은 삶을 살도록 다짐하는 기다림의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하느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흠 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1테살 3,13)

구요비 옴 주교 |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운전 중 위험한 일
즐기
전화기 만지기
한 눈 팔기

신앙 중 위험한 일
귀 닫기
세상을 만지기
한 눈 팔기

늘 깨어 기도하여라.(루카 21,36)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말씀의 이삭

성탄을 기다리며

기다림은 희망입니다. 그리움 또는 설렘입니다. 성탄을 생각하면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 공소가 있는 시골 마을에서도 대림절이면 동네 아이들이 모여 성극을 준비하고 성탄의 기쁨을 나누곤 했습니다. 먼 기억 속의 성극을 소환한 건 순전히 외가 방계 형제들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6년 전부터 11월 마지막 토요일이면 형제 모임이 있습니다. 첫 모임이 이태원에서 있었는데, 저는 연락도 없이 수녀원에 들어온 지 스무 해가 넘어 처음 보는 자리라 서먹서먹했습니다. 다들 저보다 머리로 희끗희끗하고, 오랜만이라 선뜻 말을 놓기도 어려웠습니다. 어색함을 떨치고자 초등학교 때 본 성극 중에 대사로 부른 노래가 아직 생각난다고 했더니 갑자기 어수선했습니다.

"그때 내가 솔로몬 역할을 했었는데, "난 아기", "난 가짜 엄마", "난 진짜 엄마", "어 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나도 나도!!" 여기저기서 말문을 열더니 순식간에 분위기가 환해졌습니다. "하느님보다 엄마가 더 무섭다"는 동생이 있는가 하면 "신앙의 자유를 갖고 싶다"는 동생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순식간에 세월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공통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거기 모인 형제 중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명절에 자식들이 다니러 가면 성체를 영하는지 영하지 않는지 눈여겨 보신다는 친척 어른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1801년 이

전부터 교우촌을 형성해 살아온 그곳은 현재 노인들만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공소 회장이라는 직분을 봉사했기에 길 가는 사람 누구에게나 '회장님'하고 부르며 뒤를 돌아본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부유했고, 다들 신앙만큼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걸 보면 역시 신앙은 최고의 유산인 것 같습니다. 냉담한지 45년 만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외숙부를 봐도 그렇고, 누가 하느님을 떠나 살더라도 언젠가는 아버지의 집으로 꼭 돌아오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직도 사순절이면 바쁜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매일 저녁 교우들이 모여 성로신공을 바친다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방학이라 피를 부리고 싶어도 면제되지 않았던 기도 생활, 새벽이면 조과를, 저녁이면 만과를 온 가족이 함께 바쳤던 시간이 향수로 남아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판공을 준비하고 공소에 모여 축제를 준비하던 그때의 설렘으로 돌아가 성탄을 기다리고 싶습니다.

천향길 베네딕다 수녀 | 성바오로딸수녀회

교리상식



성수와 성유는 어떻게 만드나요?

성수는 미사 때 또는 미사 외에 필요할 때마다 사제나 부제가 축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수를 많이 만들어 장기 보관할 때는 물의 부패를 막기 위해 소금을 넣기도 합니다. 성수와 혼동하기 쉬운 세례수는 부활성야 미사 중의 세례예식 때나 세례성사 전에 사제는 세례수 축복기도문을 바치며 세례수를 축복합니다. 성유는 일 년에 한 번 매년 부활 대축일을 앞둔 성목요일에 주교와 사제단이 모여 봉헌하는 성유축성미사 때 축성합니다. 미사 중에 주교는 세 가지 종류의 기름을 축성합니다. 즉 예비신자 성유, 크리스마 성유, 병자 성유입니다.

글: 「교회상식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